

JTS 대북지원사업

서 동 우 *

I. JTS 소개

1. JTS 소개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 때에 배워야 합니다.

국제 기아·질병·문맹퇴치기구 JTS (Join Together Society)는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만들어졌다. 1993년 인도 비하르주 불가촉천민(Untouchable: 인도의 최하층천민) 지역인 등게스와리 지역에 수자타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교육, 의료, 마을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 주요 빈곤 지역에서 개발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이티 지진 (2010년), 인도네시아 서부 스마트라 지진 (2009년), 미얀마 태풍 나르기스 (2008년) 등 전세계 주요 재난발생시 긴급구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 JTS 사업1팀장

2. JTS 대북사업 소개

북한의 식량난이 외부로 알려진 1995년 대홍수 이후 JTS는 북한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함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1997년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식량지원을 시작하였으며, 1997년부터 라선시에 어린이 영양식 공장을 설립하여 라선시 전체 110여개 탁아소, 유치원의 11,000여명에게 지속적으로 어린이 영양식을 지원하였다. 취약계층지원과 함께 농업지원과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북한이 자생할 수 있는 개발구호 사업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룡천역 기차 폭발사고 (2004년), 성흥열(세균성 인후염) 피해 (2006년), 수해피해 (2006~2010년) 등 주요 재난 발생시에 긴급구호 물자를 지원하였다.

JTS는 남북의 정치적 변화에도 관계없이 10여 년간 꾸준히 인도적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북측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2008년부터는 지원지역을 확대해 나갔고, 2010년부터는 평양, 자강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전국 50여개 시설의 12,000여명에게 식량, 생필품, 교육기자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Ⅱ. 전국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특수학교 지원사업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하는 기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해마다 100만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올해도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10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약 150만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더욱 클 것이다.

1. 북한의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 운영

북한에는 각 도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 고아원은 생활과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애육원, 육아원, 초등학교원, 중학교원 등

의 4개 시설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도별로 1개 또는 2개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한 개의 시설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학교는 룡아학교, 맹아학교, 양생원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특수학교에서 역시 고아원과 마찬가지로 기숙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 각 도마다 있는 양로원은 자녀가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북한의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특수학교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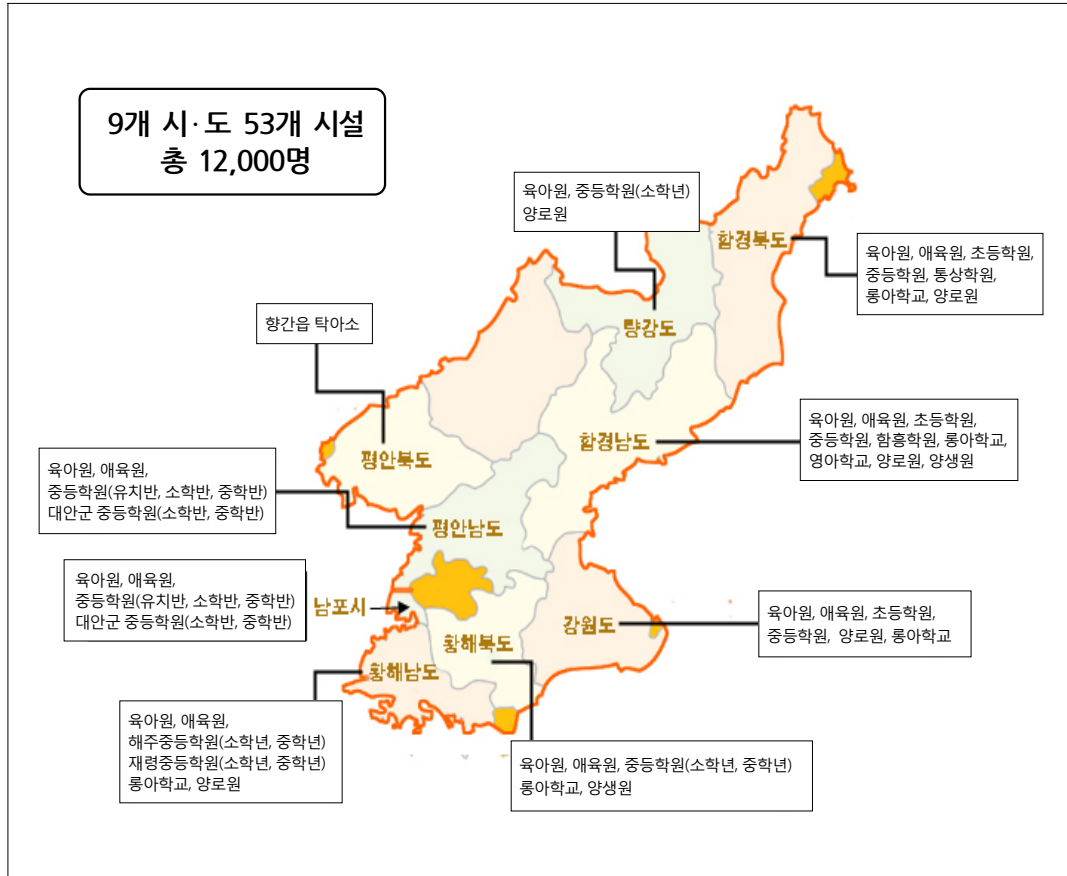
시 설	대 상
애 육 원	0~5세의 영유아 대상의 고아원
육 아 원	6~7세의 유아 대상의 고아원
초 등 학 원	8~11세의 초등학생 대상의 고아원
중 등 학 원	12~17세의 중·고등학생 대상의 고아원
룡 아 학 교 (맹아학교)	농아, 맹아 등의 장애인 학교 (기숙학교)
양 생 원	정신지체장애인 대상
양 로 원	자녀없는 노인 대상

2. JTS 전국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사업

JTS는 북한의 식량난이 알려졌던 1997년부터 함경북도 청진의 고아원에 긴급식량지원을 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을 진행하였다. 이후 함경북도, 량강도, 강원도 등에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다가 2009년 평양과 방문 모니터링이 어려운 자강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9개 시·도의 모든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학교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0년 2월, JTS는 북한 전역의 모든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학교에 식량, 생필품, 교육기자재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북측에서는 전체 지원 대상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키, 몸무게, 팔둘레 등을 측정 한 신체계측자료를 JTS에 보내주고, 모든 지원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JTS는 3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전체 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체계측자료를 받았다.

〈그림 1〉 JTS 전국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지역



JTS는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전체지역에 밀가루와 두유를 비롯한 식량 및 생필품,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였다. 처음에는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보내진 물자는 JTS와의 협조 조선위원회 (북측파트너)에서 인수하여 각도의 인민위원회 대외사업국 (일부는 해외동포영접처)에서 인수하여 각 시설에 전달되었다.

2010년 JTS는 8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한 물자의 분배와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고, 신체계측조사 표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혜자들과의 면담인터뷰를 통해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Ⅲ. 전국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특수학교 지원사업의 성과

1. 영양 및 삶의 질 개선

이에 북한에서는 3월 북측으로부터 53개 시설 12,000여명에 대한 신체계측자료를 받았다. 신체계측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측의 영양상태는 매우 열악하였다. 발육상태가 남한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2~3살 이상 차이가 나고 많은 아이들이 저체중 상태였다. 한두 가지 영양소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양상태의 개선이 필요했다.

JTS는 전반적인 영양개선을 위해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지원물자를 준비하였다. 쌀이나 옥수수 반출이 어려운 관계로 밀가루를 주식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두유를 준비하였다. 우유가 자칫 영양상태가 불균형할 때 탈이날 수 있다는 의견에 두유를 지원하여 영양보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영양 개선을 위해 영양식과 콩기름, 설탕, 분유, 소금 등을 지원하였고, 초코파이 등의 간식도 함께 지원하였다.

지원의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상반기 매우 열악해 보였던 어린아이들이 11월 방문하였을 때는 눈으로 차이를 느낄 정도로 영양이 개선되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의 몸무게가 많이 증가하면서 정상치에 가까워졌다. 현지의 이야기로는 한달에 2kg 이상 증가할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뛰어놀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JTS의 지원이 소비재 물품이어서 모두 사라져 이후에 후원자들에게 지원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 어떤 지원품 보다는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2. 모니터링을 통한 분배의 투명성 확보

JTS 전국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특수학교 지원에서 평양과 자강도 지역이 제외되었다. 평양은 외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 형편이 낫은 상황이어서 제외가 되었고, 자강도 지역은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여 제외되었다. 자강도는 북한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북한의 군수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북한내에서도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다. JTS는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자강도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진행했다.

지원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010년 한해동안 8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물자인수 및 분배현황 점검, 지원 대상의 신체계측 표본조사, 수혜자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원한 모든 물자는 JTS 전용지대를 사용하고 지원하는 물자 전체에 JTS 로고를 부착하여 JTS가 지원하는 구호물자임을 알리는 동시에 외부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시스템은 JTS와 북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먼저 JTS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 있게 지원을 진행하여 많은 후원자들을 비롯하여 남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JTS가 북측에 지원하는 구호단체임을 알려 물자 전용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북측 역시 지원된 물자가 정확하게 전달됨으로서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JTS의 지원과 북측의 모니터링 보장이라는 상호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서로간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V. 경색된 남북관계, 그래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0년 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더 어렵게 변화하였다. 정부의 대북물자 반출 불허조치로 남북교류 자체가 어렵게 되면서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까지 중단되게 되었다. 현재 JTS의 고아원지원 사업도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 다음날 남포로 출항할 예정이었던 분유와 목도리, 털모자 등 겨울용품은 인천항 보세창고에 묶여져 있다. 추운 겨울 JTS에 의지하여 겨울나기를 준비하였던 북쪽 12,000여명의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 원생들은 기약 없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올해도 북쪽은 7월의 수해로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어 농업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북관계 및 국제 관계의 악화로 외부의 지원도 거의 없다. 남북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정치적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들일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조건에도 관계 없는 인류의 양심에 따른 지원이다. 당분간 남북교류 사업이 어렵더라도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